

#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 개회 및 인사말
- 출범 취지 및 구성
- 활동 방향 및 주요 계획
- 출범선언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참여단체 명단

2022. 2. 10(목) 오전 11시, 광주NGO센터 시민마루

##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

## 1. 출범 취지 및 구성

### 1) 제안배경

-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위험이 집중되고 있음.
- 촛불항쟁 이후 적폐 청산 및 사회대개혁을 통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했으나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우리 사회와 지역의 미래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은 실종되었고 지역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
- 이에 정파·부문·영역을 초월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모아서 지역적 관점과 시민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공동 대응을 위하여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이하 광주시민연대)]를 구성기로 함.

### 2) 결성 경과

- 1/12, 시민사회단체 집담회를 개최하여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준비팀 구성
- 1/18, 준비팀 회의를 개최하여 대선 및 지방선거 대응 및 방안을 논의하고, 조직 명칭은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준)]으로 정함
- 1/26, 1차 준비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 촛불항쟁 ~ 정권 ~ 현재, 개혁 성과와 한계 및 과제 토론 ▲ 대선 및 지방선거 방침 및 조직 구성 논의
- 2/4, 대선 및 지방선거 방침·조직구성·출범 기자회견을 확정함.

### 3) 조직 구성 (무순 및 직책 생략)

- 대표자회의 : 참가단체 대표로 구성
  - 공동대표 : 김난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향자(노동실업광주센터 대표),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 집행위원회 : 공동대표(박재만, 류봉식, 김난희, 정향자), 이기훈(광주시민협 정책위원장), 홍성철(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정희연(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임동화(광주시민센터 대표),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박홍산(광주전남 6월항쟁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백희정(광주로 상임이사), 서유미(민주노총광주본부 정치위원장)
  - 집행위원장 : 이기훈(시민협 정책위원장), 홍성철(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대 변 인 : 백희정(광주로 상임이사), 기우식(참여자치 21 사무처장)
  - 자문위원단 : 참여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 2. 활동 방향과 주요 계획

### 1) 활동방향

- 정파·부문·영역을 초월하여 연대를 통한 대선 및 지방선거 공동 대응
-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배제하되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감안한 대응
- 선거 이후에도 지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기구 지향
- 시민사회 활동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대선 및 지방선거 대응

### 2) 주요방침

- 대선은 지역적 관점·시민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 중심 활동
-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독점 타파와 민주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환경 구축

### 3) 주요 계획

#### ① 대통령 선거

- 광주시민연대가 제안하는 지역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10대 핵심 정책 (정책마련) 시민사회활동가/유권자가 함께하는 ‘정치 파티’ (정책질의서 발표 및 각 후보 전달) 수용도 평가 (후보자 초청 정책 간담회) ※ 정책 협약식 개최
- 각 후보의 지역 공약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유권자에게 홍보
- 유권자와 함께하는 캠페인 전개

#### ② 지방선거

- 특정 정당의 정치적 독점 타파(정치적 환경 확대 중심) 운동 (메시지) 특정 정당 독점 타파! 비례는 진보 후보에게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민주당 경선전에 집중 활동 (공천 기준 제시 및 후보 검증 활동) ※ 청년/여성 선거구 검증 (핵심요구) 시의회 비례 대표 내지 마라! 기초 3인 선거구 이상 2인 출마
- 광역단체장 후보 초청 토론회(관훈 토론회 or 후보 초청 토론회)
- 선거 이슈 및 현안 관련 대응(성명서, 논평,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

### 3. 출범 선언문

대한민국 헌법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5년 전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국민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뜨거웠던 국민들의 염원이 촛불 혁명을 통해서 부도덕한 청와대 권력을 바꿨습니다. 이어진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은 행정·지방정부·의회 권력까지 특정 정당을 선택하면서 주권을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촛불로 세운 정부는 적폐 정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렇고 촛불을 들었는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마저 들립니다.

지역 정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광주를 대내외적으로 민주주의의 모범 도시로 알려졌지만 지역내의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으며 여전히 기득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특정 정당의 독점이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지역 정치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한달 남은 작금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책은 실종되었고 지역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는 냉소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선거는 대선에 가려져 깜깜이 선거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 사상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사회 전 분야의 불평등과 양극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우리 사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희망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시민사회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선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만으로는 우리 사회와 지역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파·부문·영역을 초월하여 대선과 지방선거에 공동 대응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정당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또한 품질과 유통 경로도 확인하지 않고 진열된 상품만을 보고 골라서 반품이 안되는 시행 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얼마 안남았지만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대선은 지역적 관점 및 시민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독점을 해소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선과 지방선거 대응 활동은 철저하게 유권자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주체인 유권자가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이게 광주냐’ 라는 질문에 ‘이것이 바로 정치다!’ ‘이것이 바로 광주다’ ‘이것이 유권자의 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오늘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대장정의 서막을 알리는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 출범을 선언합니다.

2022. 2.10(목)

##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

[참여단체 명단]